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과 부모 및 또래 지지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관련 특성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안 보 람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과 부모 및 또래 지지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관련 특성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안 보 람

# 인 준 서

안보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 수준에 따라 이들이 어떠한 하위유형으로 도출되는지 살펴보고, 도출된 하위유형들 간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만 13세에서 20세의 학교 밖 청소년 248명(남=90, 여=158)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척도, 부모지지척도, 또래지지척도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군집 1은 집단 중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외향적 특성과 친화적 특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평균 이하이며, 개방성과 성실성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 2는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장 높으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가장 낮은 '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군집 3은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친화성, 부모지지가 평균이상이며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또래지지가 다소 낮은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으며,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장 낮은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간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이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는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과 이들이 받고 있는 부모 및 또래지지의 수준에 따라 진로관련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각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격 5요인, 부모지지, 또래지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군집분석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II. 이론적 배경 .....	7
1.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	7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7
2)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 및 유형 .....	8
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특성 .....	10
2. 성격과 진로 .....	13
1) 성격 5요인 .....	13
2) 성격 5요인과 진로의 관계 .....	16
3.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 .....	20
1) 부모 및 또래지지 .....	20
2)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의 관계 .....	22
III. 연구방법 .....	26
1. 연구대상 및 절차 .....	26
2. 측정도구 .....	27
1) 성격척도 .....	27

2) 부모지지 척도 .....	28
3) 또래지지 척도 .....	28
4) 진로성숙도 척도 .....	29
5) 진로준비행동 척도 .....	30
3. 자료 분석 .....	32
IV. 연구결과 .....	33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	35
1) 성격 5요인,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	35
2) 성격 5요인,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37
3.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 .....	40
4. 군집유형별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45
1)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	45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	47
V. 논의 .....	4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성격 5요인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7
<표 2>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9
<표 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31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	33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4
<표 6>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	39
<표 7> 군집화 일정표 .....	40
<표 8> 최종 군집별 중심점 .....	41
<표 9> 군집별 진로성숙도의 차이 .....	46
<표 10>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48

## 그림 목 차

[그림 1]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 .....	44
[그림 2]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SPIDER PLOT) ...	4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50만 명이며, 매년 5~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6. 14.).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한데, 과거에는 주로 비행경험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으로 언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그리고 기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학교를 그만두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백혜정, 송미경, 2015).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 206개 시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세워지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부각되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주제가 6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김범구, 2012). 이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가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변인을 도출하고자 주로 시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연구 이외에 기존의 연구들은,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박창남 외,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손순용, 2005;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또는 청소년 중퇴의 예방(이복현, 2001; 정지인, 1997)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보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관점은 사회규범을 잘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 이들을 교정, 교화시켜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초기에 개입하여 학교에서 탈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몇몇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 시행착오와 성공경험을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성윤숙, 2005; 이경상, 조혜영, 2005; 주영신, 2007).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출하는 등의 방임된 청소년들을 ‘비정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진학, 직장취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정착형’으로 제시하였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도 학업과 취업의 생각을 모두 하지 않는 청소년을 ‘방임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외에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순수 진학형’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청소년은 ‘취업형’으로 분류하였다. 윤철경(2010) 역시 학업이나 취업 등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니트형’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외에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는 청소년을 ‘학습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취업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역기능적이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적응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있고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몇몇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위 유형을 제시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대상자가 매우 한정된 표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적응양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능수준 등을 근거로 유형화한 연구들로서, 보다 안정적인 심리 내적특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충분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도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하위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군집측정치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심리내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내적 차원으로서는 성격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 해당하는 개인외적 차원으로는 부모 및 또래지지를 설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하위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성격은 시간과 상황에 있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개인을 구별해주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을 의미하며(Phares, 1984), 진로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측면 중 하나이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일반 청소년과 같이 성격 5요인 측면에서 다양한 성격 요인을 지녔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Southworth, 1992). 학업중단 청소년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전병환, 2013),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선미, 2009; 안혜경, 2008; 이기엽, 2012; 전주연, 송병국, 2014). 또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며(금선미, 2009; 안혜경, 2008), 진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이기엽, 2012; 전병환, 2013). 반면, 개인 내적 위기요인 중 불안, 충동성,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진로에서 의존성을 높여 개인의 진로의식수준과 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신선아, 2011). 신경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체험에 민감하여 진로탐색행동에서 큰 불안을 느껴(Wang, Jome, Hasse & Bruch, 2006)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수집 및 탐색행동을 철회한다(신선아, 2011; 이혜경, 김동일, 2004; Saks & Ashforth, 2006). 이 외에도 성격 5요인을 진로관련 변인의 잠재적 예측변인으로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지연, 황매향, 2004; 송지숙, 안귀여루

,2014; 오현정, 2008; 이현아, 2014; 장휘숙, 2010; 조애리, 1998; Hoye, 2009; Lounsbury at al., 2005; Reed, 200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도움(박지원, 1985)으로, 특정 지지원에서 결핍된 지지는 다른 지지원의 사회적 지지로 충족되는 상호보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Turner at al., 2003). 적응유연적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선배 등의 친밀한 사람과의 정서적 지원과 정보제공과 충고를 통해 진로문제를 도와주는 정보적 지원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박현선, 2004; 신선아, 2011, 김현희, 2012; 안혜경, 2008; ).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은 진로성숙도가 높으며(김설아, 2010), 부모의 언어적 격려는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등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쳐(Otto, 2002; 공윤정, 2008; 박윤희, 2009; 송현신, 홍혜영, 2010; 엄앵순, 2009),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한다(김설아, 2010; 이광자, 2004). 하지만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지지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지고(김아름 외, 2010), 또래지지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김성연, 2000; 윤지영, 2016; 윤선오 외, 2010). 이는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욕구가 생기는 발달적 특성의 영향으로,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과 독립성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리, 이재창, 2005; 이인득, 2013; 이현우, 양명숙, 2017).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기의 특징과 달리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거나(금명자, 2008; 백혜경, 송미경, 신정민, 2015; 오혜영 외, 2013)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등 낮은 또래지지를 보고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한다(권해수, 정찬석, 2007; 권해수, 서정아; 전경숙, 2013; 윤철경 외, 2013).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는 개인별 차이가 나타나므로(김수리, 이재창, 2005; 이현우, 양명숙, 2017;

Southworth, 1992),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지원에 따라 분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따라 진로관련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이기학,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변인에 해당하는 성격 5요인과 개인외적 변인인 부모 및 또래 지지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하위유형을 도출한 후, 도출된 하위유형들 간의 차이를 타당화 시켜 줄 외적 준거로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성숙도는 교육 및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정도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나타내는 개념이다(김남홍, 2001; 김혜영, 2012; 우유경, 조아미, 2007). 하지만 진로성숙도가 높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진로성숙도만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한편,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김봉환, 1997),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박완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군집 간에 진로관련 특성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상담 장면에서 차별적 개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격 5요인(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과 부모 및 또래지지는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가설 1-1.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신경증은 진로성숙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4. 신경증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2】**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하위유형이 존재하는가?

가설 2-1.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지닌 하위유형이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기초하여 도출된 군집유형 간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가설 3-1.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에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에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적, 중퇴 등 현재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사한 용어로는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중퇴청소년, 학교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교거부 청소년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는 학업중단자에 사망자, 유학 및 이민자를 포함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청소년과 낙오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도탈락자’라고 칭하였으나(신선아, 2011), 1990년대 말 부터는 탈락이라는 부정적 용어에서 중립적 용어인 ‘학업 중단’으로 칭하며, 사망자, 유학 및 이민자를 제외한 학교를 중퇴하거나 현재 정규학교수업을 이어나가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소년, 근로 청소년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칭되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된 이후, 평생교육의 연속선에서 청소년이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의미를 강조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윤여각 외, 2002).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정규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대안교육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며(금명자 외, 2004), 그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서 벗어났지만 학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는 않지만 대안학교, 홈스쿨링, 독학,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 및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함께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백혜정, 송미경, 2015).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에 속하는 연령을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로 보며,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체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 및 유형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개인 내적·외적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조아미, 2002). 신현숙, 구본용(2002)은 학업 중퇴는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유성경 외(1998)도 개인의 심리 및 가치관련 요인, 사회제도 관련 요인, 학교체계 관련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Bhaerman과 Kopp(1988)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원인으로 학업과 관련한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과거 비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밖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유성렬, 2014). 이와 관련하여 주로 사례연구와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유형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 적응형은 다시 진학형, 취업형, 취업 준비형으로,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계에 속한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 요양 등)과 이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구분되었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정규 직업을 가지려는 진학지향형,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지향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는 방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윤철경 외(2013)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현재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학업형,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소일하고 있는 무업형, 보호관찰 및 소년 교도소 경험자 중심의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최근 학교 밖에서의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년이 학교를 나온 후 삶에 대한 도전과 성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활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는 연구들(김영희, 최보영, 2015; 이미원, 유현실, 2013)이 늘어나면서 학교 밖을 선택한 청소년이 이후 배움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경상, 조혜영, 2005; 윤철경 외, 2010; 허철수, 2004). 주영신(2007)은 학업중단 상황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형을 돌파구 모색형으로 명명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주연과 정제영(2015)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이탈 이후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규 교육 과정의 이탈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동질적인 단일 집단이 아닌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연구는 소수의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이 보이는 현재 적응양상을 기초로 이들을 유형화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환경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 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정상궤도를 벗어날 때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진로의 막막함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조아미, 2014; 이숙영 외, 1997)

로 미뤄보아, 일반 청소년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주로 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실태와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드물다(오승근, 이진숙 2016).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벗어나면서 경우에 따라 중도 탈락자라는 낙인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영향으로(김지수, 2013)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비행에 노출되어 부적절한 직업 선택을 하기도 한다(장성숙, 양국선, 2001). 김영희(2015)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를 선택한 청소년의 주관적 적응 경험을 탐색한 결과, 자퇴 이후 참여자들은 자퇴 당시의 각오나 생각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소외감을 심하게 느낌으로써 갈등을 겪고 있으나 주체적인 성인으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를 위하여 안착을 위한 고리를 찾고 도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진로 개척에 실패하였지만 상당수가 학업 중단 이후 진로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주금옥, 2002), 그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 진로 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정보의 부족 및 지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숙영 외, 1997). 안현의, 이소용, 권혜수(2002)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하였는데,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선택(33.5%), 경제적 자립(12.3%), 원하는 학교의 진학(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25.9%), 진로상담(20.5%), 심리상담(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

소년이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밖이라는 위기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진로 발달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리하게 하며, 사회적응 및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에(신선아, 201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 관련 다양한 변인 중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Super, 1980)로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얼마나 자신을 명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준비도를 뜻한다(이기학, 1997). 진로성숙도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을 뜻하는 ‘결정성’, 경제적 보상, 승진기회 등 현실적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나타내는 ‘확신성’, 현명한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준비성’,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혹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독립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정도를 알 수 있기에(김남홍, 2001),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은 높은 편이다(김혜영, 2012).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진로성숙도의 변화로 측정하였으며(이성희, 2010; 장정임, 2009; 황진아, 최미옥, 2013), 자아존중감(김정후, 2012; 김영애, 2018; 오선영, 2012), 회복탄력성(성동제, 2015), 사회적지지(김범구, 조아미, 2013; 김현희, 2012; 성동제, 2015; 신선아, 2011), 가족건강성(이현우, 양명숙, 2017) 등의 개인 내

적 외적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인지와 정서만을 대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기학, 1997),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 준비 행동 및 실천행위를 알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김봉환, 1997)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으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응시나 진학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관을 찾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 인턴십을 하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조선경, 2017).

## 2. 성격과 진로

### 1) 성격 5요인

성격은 사고, 감정, 행동의 지속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경향성으로 개인차를 나타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요소이다(Costa & McCrae, 2003). Allport(1961)는 성격이란 개인 특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로서의 개인 내적인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였고, Mischel(1968)은 ‘성격은 일상적으로 개인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 적응방식을 설명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며 다른 이와 구별된 행동패턴’이라 하였다(김혜성, 2013, 재인용). 성격에 대한 특성(trait)이론에서는 인간 내부에 비교적 항상적이고

구조적인 일관성을 제공해 주는 기본 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Allport, 1937; 전미리, 김봉환, 2015, 재인용). 이는 성격을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경향이라는 특성의 단위로 분석하고, 이러한 행동 경향의 집합이 개인의 특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로, 모든 특성은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나타나며 다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노안영, 강영신, 2003). 따라서 특성이론의 기본 목적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격적 특성차원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성격적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안창규, 1997). 특성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Allport 외에 Cattell, Guilford, Eysenck 등 전통적인 특성이론가들 이후 많은 성격특성 이론가들 역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의 범주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 강한 일치를 보였다(전미리, 김봉환, 2015). 이는 성격의 기본 구조가 5개의 상위요인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5요인 모델 또는 Big Five로 명명하였다(Goldberg, 1990). 성격 5요인 이론은 특성이론에 근거한 성격 모형 중 가장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uss, 1989), 성격의 개인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성격 5요인은 성격을 구성하는 특성에 대한 합의된 구조(Judge & Ilies, 2002)이며,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성격적 특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학자마다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외향성 (extraversion), 친화성 (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신경증 (neuroticism), 개방성 (openness)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먼저,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주도성 정도와 대인관계 선호와 관련 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며 낙천적이다. 외향성 점수가 낮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수줍어하는 경향

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John, 1990), 외향적 측면이 부족한 것(Costa & McCrea, 1992)이다. 외향성은 외부와 접촉하는 사회적 적성 흥미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이길수, 2004), 외향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온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자극 추구, 긍정적 정서 등이 있다.

친화성은 외향성과 같이 대인관계를 설명해 주는 차원으로서 타인을 신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뜻한다. 친화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순응적이고 이타적이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이며 타인에게 질투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위요인은 이타성, 신뢰성, 순응성, 정직성, 온정, 겸손으로 구성된다(김유미, 2008).

성실성은 부모나 타인의 지시 없이도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나가는 성격을 뜻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며,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과제에 대한 성취와 조직력이 강하여 분별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무 이행에 철저하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산만하다(송지은, 이정윤, 2014). 성실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성취에 대한 갈망, 신중성, 충실성, 유능감, 자기규제성 등이 포함된다.

신경증은 부정적 정서와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경험 정도를 의미한다. 신경증 척도가 높은 사람은 안정된 정서가 아닌 불안, 우울, 두려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고 다방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들에 심약하다고 할 수 있다(McCrea & Costa, 1985). 반면 신경증 척도가 낮은 사람은 이완되어 있으며 쉽게 동요하지 않고 안정된 정서를 느낀다(McCrea & John, 1992). 신경증의 하위요인으로는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성 등이 포함된다.

개방성은 다양성 선호, 지적 자극,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

고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반면, 개방성 점수가 낮은 사람은 변화에 대해 거부적이며, 기존의 관습과 규칙을 고수하려는 경향성이 있다(McCrae & Costa, 1987). 개방성의 하위요인으로는 미적 감수성, 상상, 감정의 개방성, 내적 감정의 민감성, 변화 선호의 경향성, 지적 호기심, 자율적인 판단력 등으로 구성된다.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은 성격의 기본 차원으로서 개인별 차이 및 특성에 대한 연구에 적합하다(Costa & McCrae, 1992). 이 5가지 특성은 다양한 문화에서 연구되었으며, 특히 직업 선택, 만족, 직업적 성취와 성공을 포함하는 중요한 생애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Brown & Hirschi, 2013).

## 2) 성격 5요인과 진로의 관계

### (1) 성격 5요인과 진로성숙도

성격 5요인과 진로관련 변인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격 5요인과 진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하지만 Southworth(1992)의 학교 밖 청소년 및 장기 결석 청소년 연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일반 청소년과 같이 성격 5요인 측면에서 다양한 성격 요인을 지녔으며, 그들이 동일한 성격적 측면을 지닌 동질 집단이 아닌 이질적 집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 유형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성격 5요인의 일반적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격 5요인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 특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격 5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성격요인의 하위유형과 진로성숙도간에 유의한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ogers와 Creed(2008)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성실성과 개방성이 다양한 진로관련 체험 및 탐색을 촉진하여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5요인 가운데 개방성과 성실성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및 준비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길수(2004)의 만13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격 5요인과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에서도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순으로 진로성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은 진로성숙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신경증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과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부정적 정서상태가 직업준비에 있어서 철회 행위들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Necowitz와 Roznowski(1994)의 연구에서처럼, 신경증은 진로성숙도와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현정(2008)은 만16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이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가 낮았다. 특히 신경증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과 가장 큰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체험에 민감하여 진로탐색행동에서 큰 불안을 느껴(Wang, Jome, Hasse & Bruch, 2006)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수집 및 탐색행동을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아, 2011; 이제경, 김동일, 2004; Saks & Ashforth, 2000). 이현아(2014)의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이 진로성숙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신경증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외향성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확신성과 준비성에 많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며(안혜경, 2008; 금선미, 2009), 진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전병환, 2013; 이기엽, 2012) 연구결과들이 이를 지지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성격 5요인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각 성격요인의 하위유형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외 연구에서는 성격을 진로준비행동의 잠재적 예측변인으로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ounsbury(2005)는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성실성, 개방성과 친화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신경증은 진로결정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Reed 등(2004)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신경증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ye 등(2009)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는 네트워킹 행동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내향성은 정보수집과 진로준비 실천과정에서 소극적인 영향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성격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전병환, 2013),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선미, 2009; 안혜경, 2008; 이기엽, 2012; 전주연, 송병국, 2014). 또한 장휘숙(2010)은 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자기존중감, 행복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 개방성 및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개인 내적 위기요인 중 불안, 충동성,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진로에서 의존성을 높여 개인의 진로의식수준과 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신선아, 2011;). 일반적으로 신경증이 높은 청소년은 환경에 대해 민감하며, 정서적 불안정성과 피로감, 긴장이 높은 편이기에(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차주환, 이동혁, 2013; McCrea & Costa, 1992), 문제해결적 접근보다는 자기비판과 부인과 같은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며(Bolger, 1990; Heppner et al, 1995), 목표나 우선순위 설정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 진로준비행동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이길환, 이덕로, 박상석, 2012; 이상희, 최춘희, 신상수, 2011, Caldwell & Burger, 1998; Reed et al, 2004, McCrea & Costa, 1991). 한편, 신경증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김지연, 황매향, 2004; 조애리, 1998)도 있는 반면,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불안이 오히려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여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일부 보고되고 있어(천석준, 이기학, 2008)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성실성, 개방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성을 일관되게 나타냈고, 친화성과 신경증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

격특성에 따라 어떠한 하위유형으로 도출되는 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 집단 간에 진로관련 행동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

#### 1) 부모 및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타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한미현, 1996) 또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도움(박지원, 1985)이라 정의한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지지형태와 지지원에 따라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달라진다. 우선 지지형태에 따라 크게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된다(박지원, 1985). 정서적 지지는 신뢰, 애정, 존경, 경험, 관심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방법을 알려주거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실제 개인이 받는 지지를 뜻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명실, 최경숙, 2007).

다음으로 지지원에 따라 Nolten(1995)은 부모, 친구, 교사 등의 다양한 자

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친사회적 지지행동으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대인관계 향상 등의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 조은주, 이경화(2015)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관계하는 가족, 친구, 교사 및 집단구성원 등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이라 정의하고, 지지원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 지지원에서 결핍된 지지는 다른 지지원의 사회적 지지로 충족되는 상호보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Turn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지지원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교사 및 학교와 관련된 지지를 제외한 부모와 또래지지를 선정하였다. 부모 지지란 청소년이 부모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을 뜻하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의 능력을 강화해 준다(김정애, 1994).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수용과 공감 등의 지지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조선경, 2017). 한편, 또래지지는 친한 친구와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감 및 친밀함 등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김명숙, 2009),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이옥영, 2015).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볼 때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교사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욱 친밀하며 또래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등 친구들의 지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김성언, 2000). 이처럼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하여(윤선오 외, 2010)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 영향을 미

친다(Voydanoff & Donnelly, 1999). 하지만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높은 또래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윤철경, 2013), 학교를 떠나거나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도 발견되었다(권해수, 정찬석, 2007; 권해수, 서정아; 전경숙, 2013).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는 개인별 차이가 나타나므로(Southworth, 1992; 김수리, 이재창, 2005; 이현우, 양명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지원에 따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의 관계

### (1)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16세~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 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전체적인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은 진로성숙도가 높으며(김설아, 2010), 부모의 언어적 격려는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등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쳐(Otto, 2002; 공윤정, 2008; 박윤희, 2009; 송현신, 홍혜영, 2010; 엄앵순, 2009),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한다(김설아, 2010; 이광자, 2004). 김도연(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는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학교 형태에 따라 부모 및 또래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오은경(2003)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간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을 비교하였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지 등을 기대하여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하였고, 취업을 생각하는 실업계열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적게 지각하여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부모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아름 등(2010)은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 및 또래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청소년이 성장해 나갈수록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지지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지고, 또래지지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언, 2000; 윤지영, 2016; 윤선오 외, 2010).

한편,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앞서 부모의 영향력과 진로성숙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달리 Super와 Nevil(1984)은 부모의 영향력과 진로성숙은 오히려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인득(2013)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 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연관이 없었으며, 또래 지지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 연구결과로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새로운 정서와 욕구가 생기고, 또래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기 원하며(김성언, 2000), 이러한 특성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김수리 외(2005)의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에서 부모지지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독립성은 전체 부모지지와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김영란과 하정(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 확신성과 준비성, 목적성은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결정성과 독립성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이현우, 양명숙(2017)도 부모와의 유대감과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은 부모관련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및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도연 외, 2012; 김영란, 하정, 2015; 노미순, 1999; 오은경, 2003; 이인득, 2013; 하영숙, 엄동문, 2013; 홍국진, 한상철, 2014). 하지만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따라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기에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2)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구조적 결손가정, 빈곤가정이 많으며(김지현, 2001; 이회란, 2008), 부모지지가 낮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민하영, 1991; 이기학, 1997; 이회란, 2008; 조혜미, 2005). 이렇듯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갖고 진로 개척과 준비 등의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박민경, 2007; 이미라, 2005; 이상길, 2002), 부모와 애정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지지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해나간다(이현우, 양명숙, 2017). 적응유연적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선배 등의 친밀한 사람과의 정서적 지원이 존재하고,

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도와주는 정보적 지원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김현희, 2012; 박현선, 2004; 신선아, 2011; 안혜경, 200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2013)의 연구에서 친구관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조선경(2017)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부모지지와 또래지지와 동일하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지지와 또래지지 부족할 경우 또래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화에 있어서 집단별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오은경(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형 청소년과 학업 유지형 청소년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었으며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나타난 반면, 니트형 청소년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진로준비행동도 세 그룹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김범구, 조아미(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왔던 미래준비집단과 진학준비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미결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관련변인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어떠한 하위유형으로 도출되는 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 집단 간에 진로관련 행동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일반 청소년과 달리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한계가 있고 표본 추출의 근거 확보가 어렵기에 확률표본추출방식(probability sampling)에 한계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연계되는 수도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13세에서 20세의 학교 밖 청소년 27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는 설문지 배포 전, 기관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만 13세~18세)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가정으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여 보호자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성인(만 19세~20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 분석 자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부모지지를 유의하게 측정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므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거나, 또는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2부를 제외한 후 총 248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성격 5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과 이기범(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 10문항(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외향성 10문항(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개방성 10문항(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친화성 10문항(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성실성 10문항(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의 5가지 요인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PIP는 5점 Likert형식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18문항은 역으로 채점된다. 각 요인 당 총점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란(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6이고,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표 1>과 같다.

<표 1> 성격 5요인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alpha$ 값

성격 5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alpha$
신경증	1*, 3*, 4, 12, 21, 28, 31, 37, 38, 41	10	.86
외향성	2, 8, 13, 17, 22, 26*, 32*, 36*, 44*, 49*	10	.88
개방성	5, 9, 14, 18, 23, 27, 33, 39*, 43*, 47*	10	.84
친화성	6, 10, 15, 19, 24, 29, 34*, 40*, 46*, 48*	10	.83
성실성	7, 11, 16, 20, 25, 30, 35*, 42*, 45*, 50*	10	.76
	전체	50	.86

\*역채점 문항

## 2) 부모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모지지 척도는 Nolten(1994)이 제작한 학생사회지지 척도를 김지혜(1998)가 번역한 사회 지지도 척도 중 부모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김지혜(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3) 또래지지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또래지지 척도는 Nolten(1994)이 제작한 학생사회지지 척도를 김지혜(1998)가 번역한 사회 지지도 척도 중 또래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의 친한 친구들은 나의 기분을 이해해 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김지혜(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4)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의 진로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결정성(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목적성(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확신성(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잘 할 자신이 있다.), 준비성(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한다.), 독립성(누가 뭐라고해도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의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개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낸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그리고 독립성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9이고, 각각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표 2>과 같다.

<표 2>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alpha$ 값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alpha$
결정성	1, 2*, 3, 4*, 5*, 6*, 7, 8, 9, 10	10	.70
목적성	11*, 12*, 13*, 14*, 15*, 16*, 17*, 18*	8	.87
확신성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0	.85
준비성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83
독립성	39*, 40*, 41, 42, 43*, 44, 45, 46, 47*	9	.83
	전체	47	.89

\*역채점 문항

## 5)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임은미, 이명숙(2003)이 두 문항(8번, 12번)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작한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명숙(2003)은 인터넷 정보 사이트가 많이 생겨났고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생활화 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진로지원센터, 고용보험센터 등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명숙의 척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정보수집 활동 6문항(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도구준비 활동 5문항(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실천적 노력 7문항(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총 3개 요인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으며,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이 측정도구를 활용한 김종운, 김현희(2016)의 연구에서는 정보수집활동 .83, 도구구비활동 .85, 실천적노력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이고, 각각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alpha$ 값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alpha$
정보수집활동	1, 2, 3, 8, 9, 17	6	.83
도구준비활동	4, 5, 13, 14, 15	5	.79
실천적노력	6, 7, 10, 11, 12, 16, 18	7	.86
	전체	18	.93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해 수집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를 활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 지지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 간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V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나이분포는 만 14세부터 만 20세까지로 평균 나이가 18.5세(SD=1.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기간은 1개월부터 75개월까지로 평균 21개월(SD=18.4)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n=448)

변인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나이	18.5세	1.8	14세	20세
학업중단기간	21개월	18.4	1개월	75개월

연구대상의 성별, 거주지, 학업중단기간, 동거인, 학교를 그만둔 학년,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90명(36.3%), 여자 158명(63.7%)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경기 194명(78.2%), 서울 34명(13.7%), 인천 20명(8.1%)으로 나타났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 229명(35.9%), 아빠 206명(32.3%), 형제자매 181명(28.4%), 할머니 12명(1.9%), 할아버지 7명(1.1%), 친구 2명(0.3%)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72명(29%), 고등학교 2학년 60명(24.2%), 고등학교 3학년 45명(18.1%), 초등학교 때 39명(15.7%), 중학교

1학년 15명(6.0%), 중학교 2학년 13명(5.2%), 중학교 3학년 4명(1.6%) 순으로 많았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 77명(33.5%), 학업흥미/동기부족 67명(29.11%), 진로와 학업의 불일치 62명(25.3%), 대안교육 56명(22.9%), 선생님과의 관계 33명(14.3%), 친구문제 32명(13.9%), 학교폭력 21명(9.1%), 건강상문제 13명(5.3%), 해외유학 12명(4.9%), 경제적 어려움 8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상급학교 진학준비 80명(32.7%), 검정고시 준비 75명(30.6%), 아르바이트 66명(26.9%), 대안학교 37명(15.1%), 취업 26명(10.6%), 취업교육수강(10.6%), 없음 18명(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48)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90	36.3
	여자	158	63.7
거주지	서울	34	13.7
	경기	194	78.2
	인천	20	8.1
	그 외	0	0
	동거인	할아버지	7
	할머니	12	1.9
	아빠	206	32.3
	엄마	229	35.9
	형제자매	181	28.4
	친구	2	0.3
학교를 그만둔 학년	초등학교때	39	15.7
	중학교 1학년	15	6.0
	중학교 2학년	13	5.2
	중학교 3학년	4	1.6
	고등학교 1학년	72	29.0
	고등학교 2학년	60	24.2
	고등학교 3학년	45	18.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친구문제	32	13.9
	선생님과의 관계	33	14.3
	학교폭력	21	9.1
	학업흥미/동거부족	67	29.1
	학교생활 부적응	77	33.5
	경제적 어려움	8	3.3
	대안교육	56	22.9
	진로와 학업의 불일치	62	25.3
	해외유학	12	4.9
	건강상문제	13	5.3
	기타	12	4.9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현재 하고 있는 일	대안학교	37
검정고시 준비		75	30.6
상급학교 진학준비		80	32.7
취업		26	10.6
아르바이트		66	26.9
취업교육수강		26	10.6
	없음	18	7.3

##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수집된 24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인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 1) 성격 5요인,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성격 5요인, 부모 및 또래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신경증( $r=-.19$ ,  $p<.01$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외향성( $r=.18$ ,  $p<.01$ ), 개방성( $r=.29$ ,  $p<.01$ ), 친화성( $r=.26$ ,  $p<.01$ ), 성실성( $r=.31$ ,  $p<.01$ ), 부

모지지( $r=.34, p<.01$ ), 또래지지( $r=.29,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결정성은 성격 하위요인 중 외향성( $r=.25, p<.01$ )과 개방성( $r=.20, p<.05$ ), 친화성( $r=.18, p<.01$ ), 부모지지( $r=.29, p<.001$ ), 또래지지( $r=.18, p<.01$ )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외향적이고 친화성, 개방성의 성격특성이 높으면서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적성은 외향성( $r=.09, p<.05$ ), 개방성( $r=.27, p<.01$ ), 성실성( $r=.17, p<.01$ ), 부모지지( $r=.24, p<.001$ )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향적이고 개방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나 승진기회 등 현실적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와 같은 측면을 더욱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확신성은 신경증( $r=-.24, p<.01$ )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r=.13, p<.05$ ), 개방성( $r=.29, p<.01$ ), 성실성( $r=.29, p<.01$ ), 부모지지( $r=.24, p<.01$ ), 또래지지( $r=.19,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낮으면서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준비성은 신경증( $r=-.19, p<.01$ )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r=.25, p<.01$ ), 개방성( $r=.08, p<.05$ ), 친화성( $r=.25, p<.01$ ), 성실성( $r=.31, p<.01$ ), 부모지지( $r=.33, p<.01$ ), 또래지지( $r=.31,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수집에 능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은 신경증( $r=-.03, p<.05$ ), 외향성( $r=.07, p<.05$ ), 개방성( $r=.31, p<.01$ ), 성실성( $r=.18, p<.01$ ), 또래지지( $r=.21,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고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성격 5요인, 부모지지,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 부모 및 또래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신경증( $r=-.16, p<.01$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외향성( $r=.19, p<.01$ ), 개방성( $r=.20, p<.01$ ), 친화성( $r=.22, p<.01$ ), 성실성( $r=.30, p<.01$ ), 부모지지( $r=.33, p<.01$ ), 또래지지( $r=.35,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과 가설 1-4를 지지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수집활동은 외향성( $r=.23, p<.01$ ), 개방성( $r=.23, p<.01$ ), 친화성( $r=.27, p<.01$ ), 성실성( $r=.30, p<.01$ ), 부모지지( $r=.34, p<.01$ ), 또래지지( $r=.38,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외향적이고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도구준비활동은 신경증( $r=-.20, p<.01$ )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개방성( $r=.19, p<.01$ ), 친화성( $r=.12, p<.05$ ), 성실성( $r=.29, p<.01$ ), 부모지지( $r=.19, p<.01$ ), 또래지지( $r=.27,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내,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낮으면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높고, 부모 및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노력은 신경증( $r=-.15, p<.05$ )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r=.16, p<.05$ ), 개방성( $r=.09, p<.05$ ), 친화성( $r=.15, p<.01$ ), 성실성( $r=.33, p<.01$ ), 부모지지( $r=.22, p<.01$ ), 또래지지( $r=.29, p<.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력을 하는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6>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n=448)

	1	2	3	4	5	6	7	8	8a	8b	8c	8d	8e	9	9a	9b	9c
1. 신경증	1																
2. 외향성	-.29**	1															
3. 개방성	-.13*	.27**	1														
4. 친화성	-.25**	.32**	.10	1													
5. 성실성	-.43***	.23**	.32**	.19	1												
6. 부모지지	-.09	.33**	.28**	.38***	.28**	1											
7. 또래지지	-.18	.38***	.19**	.37***	.27**	.33**	1										
8. 진로성숙도	-.19**	.18*	.29**	.26**	.31**	.34**	.29**	1									
a. 결정성	.11	.25**	.20**	.18**	.14**	.29**	.18**	.63***	1								
b. 목적성	-.06	.09*	.27**	.17**	.16**	.24**	.09	.60***	.30**	1							
c. 확산성	-.24**	.13*	.29**	.01	.29**	.24**	.19**	.63***	.46***	.33**	1						
d. 준비성	-.19**	.25**	.08*	.25**	.31**	.33**	.31**	.50***	.26**	.08	.26**	1					
e. 독립성	-.03*	.07*	.31**	.13	.18**	.10	.21**	.47**	.20**	.44**	.22**	.25**	1				
9. 진로준비행동	-.16**	.19**	.20**	.22**	.30**	.33**	.35**	.42***	.32***	.12*	.38**	.54***	.14	1			
a. 정보수집활동	-.11	.23**	.23**	.27**	.30**	.34**	.38**	.43***	.37**	.19**	.36**	.52***	.16*	.71***	1		
b. 도구준비활동	-.20**	-.01	.19**	.12*	.29**	.19**	.27**	.32**	.34**	.07	.34**	.48***	.04	.71***	.67***	1	
c. 실천적 노력	-.15*	.16*	.09*	.15**	.33**	.22**	.29**	.38**	.32**	.09	.36**	.47***	.13*	.73***	.65***	.68***	1

\*  $p < .05$ , \*\*  $p < .01$ , \*\*\*  $p < .001$

### 3.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

개인내적 변인인 성격 5요인(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서 동질적인 성향을 가지는 군집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모든 대상이 한 개의 군집으로 묶일 때 까지 가까운 대상부터 묶어 나가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통해 적절한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에는 집단 간 평균 연결법으로 분류한 ‘단계’와 각 단계별 집단에 속한 대상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군집화 계수’를 표시하였다. 군집화 계수가 클수록 분류 대상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하며, 인접한 단계에서 군집화 계수 차가 커지면 대상이 서로 이질적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때 발견된 집단을 적절한 군집의 수로 결정할 수 있다(최현철, 2013). 1단계에서 분석한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화 일정표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일정표	계수차이
.	.	.
.	.	.
241	320.8211	27.2581
242	348.0792	27.9898
243	376.069	40.9261
244	416.9951	45.169
245	462.1641	87.6409
246	549.805	173.7796
247	723.5846	

1단계 분석결과, 4-6개의 군집이 제안되었고, 예비 군집을 설정하여 최종 군집 개수를 확정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나타낸 4개의 군집을 최종 군집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집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이 44명(17.7%), 군집 2가 18명(7.3%), 군집 3이 108명(43.5%), 군집 4가 78명(31.5%)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8>에 각 군집별로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고,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 별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1]과 [그림 2]를 제시하였다.

<표 8>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1 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2 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군집3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 집단	군집4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 집단
신경증	-0.41	1.08	0.54	-0.79
외향성	-0.90	-1.35	-0.10	0.99
개방성	0.17	-1.74	-0.02	0.36
친화성	-0.90	-1.91	0.13	0.80
성실성	0.19	-1.45	-0.26	0.61
부모지지	-0.48	-1.57	0.12	0.49
또래지지	-0.39	-1.34	-0.03	0.60
군집크기	44	18	108	78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  $M=0$ ,  $S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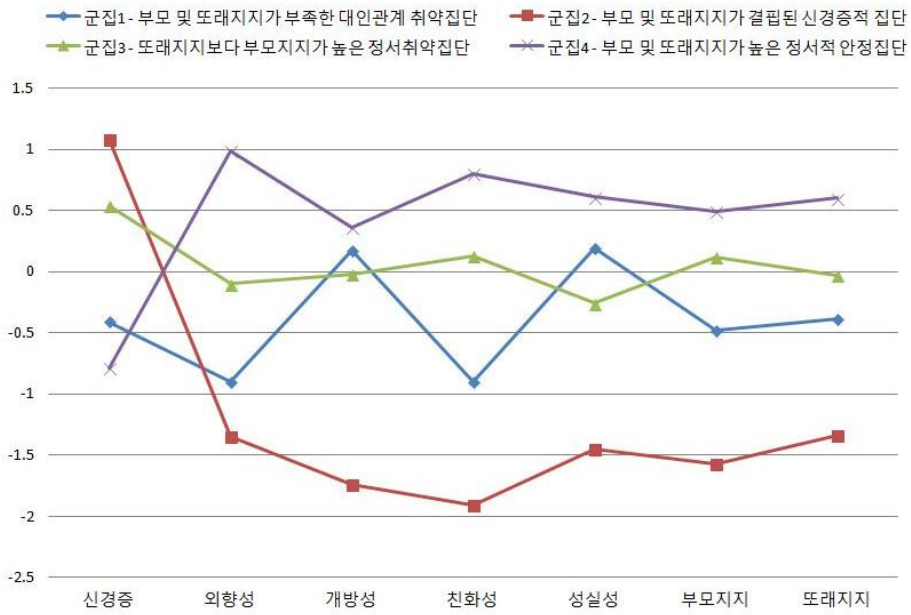
군집 1은 집단 중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외향적 특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평균 이하이며, 개방성과 성실성이 평균보다 다소 높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 수동적이다. 또한 부모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낮은 편이며 또래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에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취적이다. 타인의 지시 없이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며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군집 1을 ‘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다른 군집에 비해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장 높으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성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적고 변화에 거부적이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겪고 있으나 부모 및 또래로부터의 안정된 지지와 정보를 받지 못하여 더욱 부정적 정서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집 2를 ‘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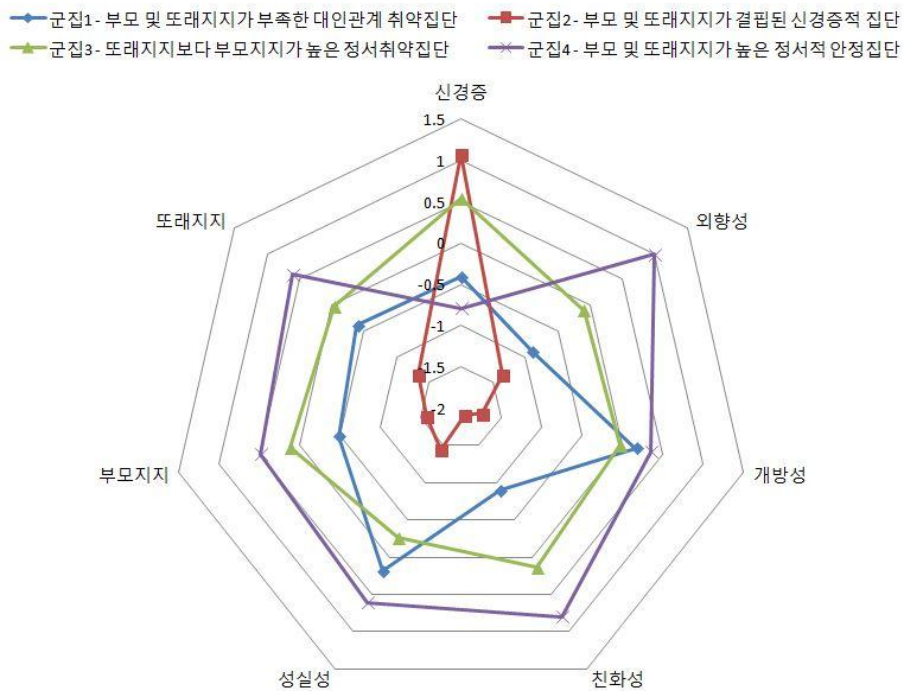
군집 3은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친화성, 부모지지가 평균이상이며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또래지지가 다소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자기 자신과 주변인의 감정에 민감한 편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타적이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적 흥미와 사교성은 낮은 편이다.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편이며 또래관계보다 부모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해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한

다. 따라서 군집 3을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 지지가 높으며,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장 낮았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한다. 성취와 목표에 대한 과업 달성에 관심이 높으며, 실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려 노력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인다. 부모와 또래관계에서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받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에 능동적이고 변화에 대한 유연적인 사고를 한다. 따라서 군집 4를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성격유형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



[그림 2] 성격유형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른 군집유형(SPIDER PLOT)

#### 4. 군집유형별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1)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도출된 4개의 하위집단들이 진로성숙도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집 간 진로성숙도( $F=30.98$ ,  $p<.001$ )와 모든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결정성( $F=13.01$ ,  $p<.001$ ), 목적성( $F=8.71$ ,  $p<.001$ ), 확신성( $F=20.44$ ,  $p<.001$ ), 준비성( $F=24.02$ ,  $p<.001$ ), 독립성( $F=14.80$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을 지지하였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떠한 군집에서 차이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유의하게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가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 3(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보다 유의하게 진로성숙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의 경우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성의 경우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과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의 경우,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군집 3(부모 지

지적 정서취약집단)이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군집별 진로성숙도의 차이검증

		N	평균	표준편차	F (3, 244)	사후검증 scheffe
결정성	군집1	44	2.87	.53	13.01***	2<1<3<4
	군집2	18	2.69	.66		
	군집3	108	3.00	.46		
	군집4	78	3.32	.49		
	합계	248	3.05	.53		
목적성	군집1	44	3.55	.64	8.71***	2<3<1,4
	군집2	18	2.53	.83		
	군집3	108	3.25	.75		
	군집4	78	3.51	.92		
	합계	248	3.33	.83		
확신성	군집1	44	3.06	.70	20.44***	2<3<1<4
	군집2	18	2.42	.65		
	군집3	108	2.94	.58		
	군집4	78	3.49	.62		
	합계	248	3.10	.69		
준비성	군집1	44	3.45	.70	24.02***	2<1,3<4
	군집2	18	2.25	.53		
	군집3	108	3.45	.64		
	군집4	78	3.59	.54		
	합계	248	3.41	.69		
독립성	군집1	44	3.97	.55	14.80***	4<1,2,3
	군집2	18	3.84	.68		
	군집3	108	3.80	.55		
	군집4	78	2.84	.97		
	합계	248	3.77	.69		
진로성숙도 전체	군집1	44	3.36	.41	30.98***	2<1,3<4
	군집2	18	2.54	.65		
	군집3	108	3.28	.36		
	군집4	78	3.55	.39		
	합계	248	3.32	.47		

주)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군집3=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

\*\*\*  $p < .001$

##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다음으로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군집 간에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0.53, p<.001$ ).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정보수집활동( $F=13.25, p<.001$ ), 도구수집활동( $F=8.21, p<.001$ ), 실천적노력( $F=6.69, p<.001$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성격 5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에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2를 지지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떠한 군집에서 차이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유의하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도구준비활동, 실천적 노력은 모두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가 나머지 군집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검증

		N	평균	표준편차	F(3, 244)	사후검증 scheffe
정보수집활동	군집1	44	3.06	.75	13.25***	2<1<3<4
	군집2	18	3.01	.57		
	군집3	108	3.27	.85		
	군집4	78	3.54	.91		
	합계	248	3.24	.90		
도구준비활동	군집1	44	2.97	.85	8.21***	2<1,3<4
	군집2	18	2.04	.71		
	군집3	108	2.93	.91		
	군집4	78	3.19	.91		
	합계	248	2.96	.93		
실천적노력	군집1	44	2.69	.82	6.59***	2<1<3<4
	군집2	18	2.11	.73		
	군집3	108	2.85	.90		
	군집4	78	3.11	1.01		
	합계	248	2.85	.94		
진로준비 행동 전체	군집1	44	2.89	.71	10.53***	2<1<3<4
	군집2	18	2.12	.67		
	군집3	108	3.01	.83		
	군집4	78	3.28	.85		
	합계	248	3.01	.85		

주)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군집3=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

\*\*\*  $p < .001$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군집유형을 도출하고, 군집유형별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격 5요인과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4개의 유형(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격 5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진로성숙도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신경증적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체험에 민감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 및 관련 행동을 철회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길수, 2004; 오현정, 2008). 특히, 신경증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과 준비성, 독립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높은 신경증적 특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이 낮고(이현아, 2014),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이 저하되며(오현정, 2008), 부적응과 정서적 불안성을 자주 경험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할수록 의존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길수, 2004; 황일영 등, 2015). 다음으로,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적 성격특성과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경증 요인이 전반적 진로 발달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현아, 2014; 조애리, 1998; 황일영 등, 2015; Lent et al,

1994). 또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높으며(이길수, 2004; 김유미, 2008)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에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금선미, 2009; 오현정, 2008). 특히, 외향적 성격특성과 개방성, 성실성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흥미가 높고 지적 호기심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진로선택에 대한 혼란이 적고(이현아, 2014),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안혜경, 2008), 진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전병환, 2013). 친화성의 경우에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관계적 욕구가 높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및 탐색 행동을 활발히 하며(조애리, 1999), 선택한 진로에 대해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ye et al, 2009).

다음으로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와 또래지지 모두 진로성숙도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에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탐색에 활발하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오은경, 2003; 엄앵순, 2009). 특히,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과 준비성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통한 언어적 격려는 진로 발달 및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쳐(공윤정, 2008; 박윤희, 2009; 송현신, 홍혜영, 2010; Otto, 2002), 미래계획을 세우고 진로목표를 세워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이광자, 2004; 엄앵순, 2009), 진로선택에 있어서 외적인 가치나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설아, 2010). 한편, 또래지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기 원하며 관계가 친밀할수록 고민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성연, 2000).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성숙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하고,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진로성숙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한편,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신경증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활동을 제외한 도구준비활동과 실천적 노력에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충동성, 불안,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진로에서 의존성을 높여 개인이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신선아, 2011). 다음으로,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적 성격특성과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흥미가 높고 지적 호기심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변화에 개방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장휘숙, 2010; 유태용, 1998). 특히 전병환(2013)의 학업 중단 청소년의 진로연구에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전병환, 2013). 특히, 외향적 성격특성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활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외향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관심이 높은 성향이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 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Hoye et al, 2009).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3을 지지하고,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4를 지지하였

다.

이어서,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를 기초로 도출된 군집유형별 특징과 진로 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 ‘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군집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집 유형인 군집 1(부모 및 또래지지가 부족한 대인관계 취약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17.7%(남: 68.2%, 여: 31.8%)가 해당되며,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외향성, 친화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평균 이하이며, 개방성과 성실성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정적 정서에 쉽게 동요되지 않으며, 타인의 지시 없이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송지은, 이정윤, 2014). 이들은 대인관계에 관심이 적고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으로 문제나 과제해결에 있어서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며, 부모 및 또래관계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들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독립성에서 다른 군집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숙도를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은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주변 평판이나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진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보수나 진로진입의 용이함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본인의 자아실현과 자기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군집과 같이 대인관계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여 진로진입 및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박주연, 2015). 따라서 이

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과 유관기관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진로준비 가이드 역할과 접근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캠프나 또래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또래 관계망 형성과 정서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인다면 해당 군집의 청소년의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군집 유형인 군집 2(부모 및 또래지지가 결핍된 신경증적 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7.3%(남: 33.3%, 여: 66.7%)가 해당되며,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부모 및 또래 지지가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며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성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적고 변화에 거부적이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겪고 있으나 부모 및 또래로부터의 안정된 지지와 정보를 받지 못하여 더욱 부정적 정서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유형은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로성숙도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보였고,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보인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격적으로 취약하며 부적응적 진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스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진로준비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진입에 보다 적응력을 가질 수 있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해당 군집은 네 가지 군집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통계청(2016)에서 비구직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17.3%로 보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은둔형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등 접촉이 어려운 청소년의 연구 미참여로 인해 실제 인원이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비율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은 진로준비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찾아가는 상담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시도와 사례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만큼 심리상담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업 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취업지원, 자기계발기회제공, 기본생활습관 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과 개입이 해당 군집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 군집 유형인 군집 3(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43.5%(남: 32.4%, 여: 67.6%)가 해당되며,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친화성, 부모지지가 평균이상이며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또래지지가 다소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자기 자신과 주변인의 감정에 민감한 편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타적이다. 사회적 상황에서 나를 드러내 고자 하는 사회적 흥미와 사교성은 낮은 편이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필요한 이해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편이며, 또래관계보다 부모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 이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보인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

정집단)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군집과 같이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은 경우 과제를 조직하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조애리, 1999), 진로상담에서 상담자와 함께 진로 문제를 구체화하고 준비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집단의 경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나 다소 낮은 또래지지로 인해 긴장감과 우울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과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또래 학교 밖 청소년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여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교환, 정서적지지, 성공적 사례 모델링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유형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군집유형인 군집 4(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은 정서적 안정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31.5%(남: 24.4%, 여: 75.6%)가 해당되며, 다른 군집에 비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부모 및 또래지지가 높고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장 낮았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한다. 성취와 목표에 대한 과업 달성에 관심이 높으며, 실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려 노력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인다. 부모와 또래관계에서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받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에 능동적이고 변화에 대한 유연적인 사고를 한다. 이 유형은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보였지만,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독립성에서 다른 군집보다 유의하게 낮은 성숙도를 보였다. 이는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부모의 의견에 대해 고려한다는 선행연구(김수리, 이재창, 2005; 김영란, 하정,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유형의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호소문제 없이 적응적이고 안정적인 집단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은 중단하였으나 진로측면에서도 성숙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별도의 진로상담 및 개입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어 보이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다른 군집의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독립성을 나타냈기에 진로선택 및 결정시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군집의 청소년의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진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적응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군집으로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적응적 특성과 집단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되는 성격요인과 부모 및 또래지지 요인을 밝힘으로써, 실제 진로 상담 시 신경증적 성격특성이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의 성격 요인을 고려하고 부모나 또래의 지지수준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장면에서 차별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미성년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부모 동의서가 수거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일부가 연구에서 배제되었기에, 실제로 부모지지를 적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를 모집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부모 동의서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군집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채택한 군집측정치에 따라 유형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측정치를 성격과 부모 및 또래지지로 한정하여 하위유형을 도출하였으나, 특히 군집 3(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높은 정서취약집단)의 경우, 가장 많은 청소년이 속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타 군집에 비해 뚜렷한 특성 확인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집측정치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동기,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였으나,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정보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 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2-221.
- 금선미 (2009). 여대생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지현 (20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7), 59-66
- 김강호, 김은석, 안선영, 금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 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상현, 양정호 (2014).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복교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4), 31-60.
- 김수리, 이재창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성별 및 부모 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영희 (2015). 검정고시를 선택한 일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적응 경험 -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7-157.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 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영희, 허철수 (2012).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 **미래청소년학회지**, 9(4), 31-50.
- 김정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22-49.
- 김정애 (1994), **사회적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

-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후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안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학, 최보영 (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 김지수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탐색경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황매향 (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637-646
-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청소년의 적응군집화 및 5요인 성격특성이 집단판별에 기여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2(3), 149-174.
- 김지혜 (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박주연 (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교육과학논문집**, 21, 131-158.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 도중수 (2003). 청소년 학업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 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310.
- 성윤숙 (2005).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송지숙, 안귀여루 (2014). 고등학생의 부정적 정서상태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279-302.
- 송지은, 이정윤 (2014).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5(3), 1183-1198.
- 송현심, 홍혜영 (2010). 대학상담 :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선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임, 현채송 (2008). 부모의 사회적 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1(2), 45-59.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조혜영, 박민경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창규 (1997). NEO-PI\_R 성격검사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443-472.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주, 연구진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 관련 부·모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199-227.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사업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현황**.
- 여성가족부 (2016. 6. 14.).  
 “법률 시행 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도약”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296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2964)
- 오승근, 이진숙 (2016).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의 진로준비 현황 및 진로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149.
- 오은경 (2014)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오은주 (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교육 연구**, 27(2), 85-107.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태용, 이기범 (2004). 한국판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1), 25-47.
- 윤여각, 박창남, 잔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

사. 한국교육개발원.

윤초희, 안태희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선택 동기, 진로신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131-157.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길수 (2004).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5요인 성격특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길환, 이덕로, 박상석 (2012). 성격 5요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31(4), 397-432.

이민희 (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직업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7(4), 57-67.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이상희, 최춘희, 신상수 (2011). 재취업구직자의 성격5요인이 구직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2(1), 85-102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중도 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 양명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기개념명확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91-116.
-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 (2013). 고등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43-466.
- 이희란 (2008).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진로요구, 직업가치, 진로성숙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장정임 (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11(2), 141-163.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전경숙 (201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 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전병환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낙관성, 성취동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연, 송병국 (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3), 171-200.
- 조규필, 박현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 상담 :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 연구**, 8(3), 1085-1099.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애리 (1998).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신 (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주환, 이동혁 (2013). 청소년의 신경증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4(4), 2085-2105.
- 천석준, 이기학 (2008).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모형검증: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93-110
- 통계청 (2016).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창훈, 조영아 (2016). 고등학생의 부모 진로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79-107.
- 황일영, 이남겸, 강찬희 (2015). 대학생의 Big Five 성격요인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3), 261-274.

- 황진아, 최미옥 (2013). 미용교과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1(6), 1059-1066.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4), 525-537.
- Bhaerman, R. D., & Kopp, K. A. (1988). The School's Choice: Guidelines for Dropout Prevention at the Middle and Junior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Series*.
- Brown, S. D., & Hirschi, A. (2013).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99-328.
- Caldwell, D. F., & Burger, J. M. (199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job applicants and success in screening interviews. *Personnel Psychology*, 51(1), 119-136.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Costa, P. T., & McCrae, R. R (2003). Personality in adulthood : A

- five-factor theory perspective. *NY : Guilford Press*.
- Frankel, K. A. (1990). Girls' perceptions of peer relationship support and stres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1), 69-88.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
-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and Johnson, W. C., Jr.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279-293.
- Hoye, G. V., Hoofit, E. A., & Lievens, F. (2009). Networking as a job search behaviour: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2*(3), 661-682.
- John W. Lounsbury, Teresa Hutchens, James M. Loveland (2005).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dedness Amo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25-39.
- Judge, T. A., & Ilies, R. (2002).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performance motiva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797.
- Leavy, R. I. (198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3-21.
- Lounsbury, J. W., Teresa Hutchens, Loveland, J. M. (2005).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dedness Amo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25-39

- Mary Beth Reed, Monroe A. Bruch, Richard F. Haase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 McCrae, R. R., & Costa, P. T. (1985). Updating Norman's adequate taxonom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10-721.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 ME Rogers, PA Creed, AI Glendon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Marrow, G. P. (1986). Stand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Dropouts. *Teachers Collage Record*, 87.
- Naitian Wang, LaRae M. Jome, Richard F. Haase. (2006).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12-332.
- Necowitz, L. B., & Roznowski, M. (1994). Negative affectivity and job satisfaction: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the relationship and effects on employee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3), 270-294.
- Nolten, P. W. (1995).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 Paul Southworth (1992).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istent absence among secondary aged school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different categories of persistent abs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3), 367-376.
- Reed, M. B., Bruch, M. A., & Hasse, R. W.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Saks, A. M. (2006). Multiple predictors and criteria of job search behavior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27-287.
- Saks, A. M., & Ashforth, B. E. (2000). Change in job search behavior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77-287.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1), 30-44.
- Turn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Wang, N., Jome, L. M., Haase, R. F., & Bruch, M. A. (2006).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12-332.

# ABSTRACT

## Career Related Characteristics of Out-of-School Teenager Groups Based on Personality Traits, Parental and Peer Support Level

Boram A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order to better comprehend subtypes of teenagers outside of the school, this research explores how the teenagers are categorized into subtypes according to the 5 personality traits, parents and peer support level, and attempts to validate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ross different subtypes. A cluster analysis regarding 5 personality traits, parental support level and peer support level on 248 out-of-school teenagers between 13 and 20 years of age, sampled from out-of-school teenager support centers nearby Seoul produced 4 different groups. Group 1 showed below-average results regarding neurotic personality traits, extroverted personality traits and agreeableness traits, parental and peer support level. This group is also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vulnerability group that lacks parental and peer support’ that shows higher-than-average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Group 2 shows the highest neurotic personality traits, and the lowest extra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parental and peer support, and an 'emotionally vulnerable group whose peer support level is higher than parental support level' with the lowest parental and peer support. Group 3 shows above average neurotic personality traits, agreeableness and parental support and below average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peer support, an 'emotionally vulnerable group whose parental support level is higher than peer support level. Group 4 shows above average results in all extra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parental and peer support level, and an 'emotionally stable group with high parental and peer support' that shows the lowest neurotic personality traits.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at examined the career maturity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ross groups revealed that Group 4 (emotionally stable group with high parental and peer support) showed higher career maturity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ereas Group 2 (neurotic group lacking parental and peer support) scored the lowest in career maturity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mpared to other groups. Such results indicate that career related characteristics differ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parental support and peer support level of out-of-school teenagers. A discussion took pla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nd significance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Keywords : Out of school teenager, Big five, Parental support, Peer support,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luster analysis

## 부 록

-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 부록 2. 성격 척도(IPIP)
- 부록 3. 부모지지척도
- 부록 4. 또래지지척도
- 부록 5. 진로성숙도 척도(CAMI)
- 부록 6. 진로준비행동 척도
- 부록 7. 기초 설문지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안녕하세요?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본 설문지는 학교의 정규과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하위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진로관련 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연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잘 읽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안 보 람 드림

(연구 담당자: abr1123@naver.com)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전달받고 숙지하였으며  
응답한 내용들이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날짜 : 2018년    월    일

서명 :

부록 2. 성격 척도

다음은 당신의 평소 모습을 설명하는 문항들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쉽게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지럽혀지면 즉각 청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사람들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7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쉽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9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2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3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45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④	⑤
46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7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9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0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부모지지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①	②	③	④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화나 있을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나의 부모님은 나를 쓰다듬거나 안아주신다.	①	②	③	④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5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7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부모님은 내가 다투거나 싸웠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에 대해 친절하게 지적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부모님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부록 4. 또래지지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나의 기분을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혼란스러울 때 기분이 나아지게끔 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나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나의 곁에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친한 친구(들)는 그(그들)의 것을 나와 함께 나눈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가 묻는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 마음일 불안할 때 나를 진정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하는 행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내가 실수할 때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부록5. 진로성숙도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위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진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 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0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3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 하는 직업보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6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6. 진로준비 행동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카운슬링센터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7. 기초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여러분의 나이를 적어 주세요.

만 (      ) 세

3. 여러분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그 외

4.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모두 표기해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빠   ④ 엄마   ⑤ 형제자매   ⑥ 친구   ⑦ 없음  
⑧ 기타: \_\_\_\_\_ (직접 적어주세요.)

5. 정규 학교에 마지막으로 다닌 학년(학교를 그만 둔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때      ② 중학교 1학년      ③ 중학교 2학년      ④ 중학교 3학년  
⑤ 고등학교 1학년   ⑥ 고등학교 2학년      ⑦ 고등학교 3학년

6. 정규 학교에 마지막으로 다닌 지 (학교를 그만 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7.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친구문제 (   )      ② 선생님과 관계 (   )      ③ 학교폭력 (   )  
④ 학업흥미/동기부족 (   )   ⑤ 학교생활 부적응 (   )   ⑥ 경제적 어려움 (   )  
⑥ 대안교육 (   )      ⑦ 진로와 학업의 불일치 (   )   ⑧ 해외유학 (   )  
⑨ 건강상 문제 (   )   ⑩ 기타: \_\_\_\_\_ (직접 적어주세요.)

8.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대안학교   ② 검정고시준비   ③ 상급학교 진학준비   ④취업   ⑤ 아르바이트  
⑥ 취업교육수강(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학교 등)   ⑦ 없음  
⑧ 기타: \_\_\_\_\_ (직접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